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 항구한 믿음

오늘 복음은 항구한 믿음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탄치 않음이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성찰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가나안 부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뜻밖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우선시했던 마태오 복음의 신학을 고려한다 해도 이방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딘지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까지 하십니다.

헌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냉정하고 가혹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여인의 대응에서 큰 믿음과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냉대와 거절의 시련을 받아들이고는 처음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내 맡겼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식사 때 작은 빵 조각을 비벼 손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말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란 먹다 흘린 음식이 아

니라 이렇게 손을 씻은, 어찌 보면 이미 음식이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을 위해 마련된 위대한 섭리까지는 아니라도, 그저 그 은총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로도 제 딸에게 충분할 것이라 여인은 믿었습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방 여인의 겸손한 간청을 받아들이시며 찬탄과 기쁨으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의 강조로 시작된 대화가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이미 그녀에게 성취된 구원의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대화의 흐름은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장차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느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될지 예고합니다. (이사 56,6-7 참조)

가나안 여인은 어느 것 하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 멸시를 겪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림으로써 큰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그녀를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확고하고 인내롭게, 조금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않으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깊이 확신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이사 56,7)**

산 아래 도착해 보니 멀리서 보였던 그 위대한 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대한 벽이 제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기 위해 이 험든 길을 걸었나 하는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앞을 보지 말고 뒤돌아 내가 걸어온 길을 보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랑스러워해라. 같이 기뻐하리라.’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